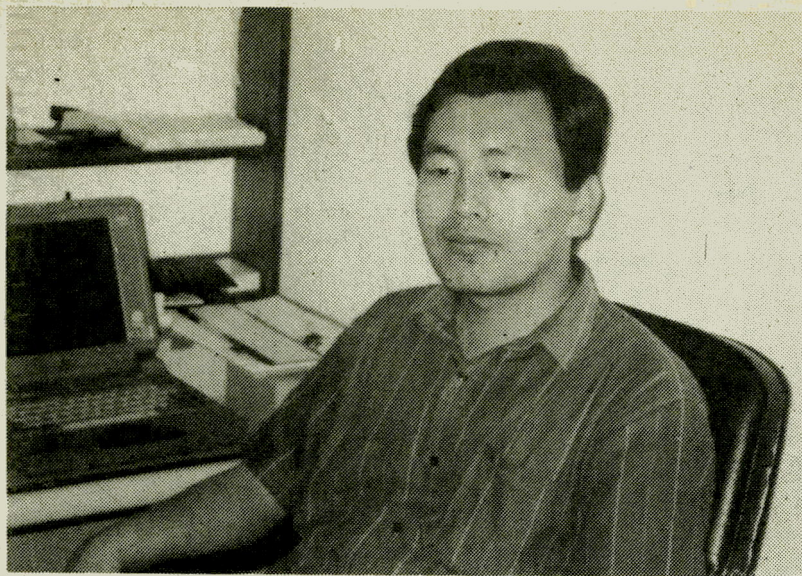




지역문화운동가로 거듭난 전직 의사 한일권씨는 퇴직금과 동료의사들이 빌려준 은행대출금, 후원회원들의 기금을 합쳐 문화센터 운영비를 마련했다.

고정관념을 깬다 ② 부산문화센터 대표 한일권씨

의사직 버리고 주민 생활문화 치료

부산/이병학 기자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며 좀더 두터운 삶의 무늬를 이뤄가는 사람이 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말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의사직을 포기하고 지역 생활문화운동에 뛰어든 한일권(35·부산문화센터 대표)씨는 요즘 보기 드문 욕심없는 사람이다.

그가 부모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의사직을 버리고 지역 문화운동을 펴겠다고 나선 데는 9년간의 보건 의사 생활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며 얻은 귀중한 경험이 영향을 끼쳤다. 앞서 주민을 진료하는 소극적 의료활동보다 예방 의학 차원의 적극적 생활보건운동이 주민 건강에 실질적 도움을 주리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14일 문을 연 문화센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경남지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매주 1회씩 여는 '건강한 삶, 건강한 가정, 건강한 동네를 위한 주민 무료 건강강좌'였다.

"건강한 사회란 국민 개개인의 몸은 물론, 정신과 생활이 함께 튼실한 사회입니다. 주민을 직접 진료하는 데서 나아가 지역주민들 삶속에 건강한 생활문화가 자리잡도록 하는 것에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작정입니다."

그는 올해초부터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운 한 뜻있는 독지가의 전폭적 신뢰를 받아 5층 건물을 거저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한씨는 부산 인제의대를 졸업할 때도, 너도나

도 인기있는 분야의 전문의가 되려는 세태를 거슬러 수련의과정을 거부하고 '일부러' 일반의사로 남았던 사람이다. 지금 부산여성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아내 김미지(34)씨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음은 물론이다.

"의사의 길은 매우 가치있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의료행위라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삶과 보건을 도외시킨 거래행위로 떨어진다면 문제 아닙니까. 서민들 생활속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가 늘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 인간중심의 의료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꼭 전문의가 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풍토가 문제라고 지적한 한씨는 "부와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해 사회 구석구석에서 주민과 함께 숨쉬며 의료활동을 펴는 일은 일반의사의 지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는 졸업 뒤 곧바로 입대해 국립마산결핵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뒤 지난해까지 부산 강서구보건소 의무사무관으로 일해 왔다.

"주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풍성한 문화산실을 가꿔볼 생각입니다. 보여 주는 문화가 아니라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고스란히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문화운동을 펴겠습니다."

그는 이미 시작한 저소득층을 위한 놀이방 시설을 늘리는 한편, 오는 9월께에는 어린이문화교실, 직장인·주부를 위한 건강·음악·컴퓨터·역사교실과 사회복지 사업으로 방과후 프로그램과 무료진료실·무료예식장 운영까지 지역주민들의 삶을 살찌우는 2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